

시와 이야기로 엮은 꽃 에세이의 명편

문일평의 《화하만필》

좋은 책이 반드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쥐벼룩의 공격을 받는 책이 있는가 하면, 눈밝은 이들에게 발견돼 세월의 때를 벗고 새 생명을 누리는 책이 있다. 문일평의 명편 에세이 《화하만필》은 전자에 속한다. 시와 노래, 그리고 사화로 엮은 꽃 백과사전이라 할 만한 이 책에는 못 시인묵객이 다투어 상찬한 꽃들의 향기가 그윽하게 담겨 있다.



삼성문화재단/B6/286면/70원

드디어 치자나무에 꽃이 폈다. 손꼽아 기다릴 정도는 아닐지라도 행여나 꽃이 피기를 바랬는데,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지 두 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목련꽃처럼 하얀색으로 성장(盛裝)한 장미꽃을 닮았다. 무엇보다 향이 일품이다. 그 형언할 수 없는 향 앞에서 문자는 무색해진다. 문득 황경인의 한시 <술에서 깨어나>가 기억난다.

“꿈 속에 치자꽃 향기 살랑 코끝을 스치더니 / 눈을 뜨니 배곶머리 한기가 서리네 / 문 걸어 잠그는 것 잊고 잠들었던 게지 / 산봉우리 사이로 지는 달빛이 슬며시 침상 위로 오르네”(《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에서, 이병한 엮음, 민음사).

꽃 아래서 붓 가는 대로 쓰다

두달 전 친구가 향이 그만이라며 치자나무 화분을 보내줬을 때만 해도 생급스럽다고 생각했다. 고상한 화훼취미도 없거니와 애지중지 기를 정성도 없던 탓이다. 책상 위에 방치된 채 며칠이 지나자 잎이 시들해지더니 급기야 노란 물을 뒤집어썼다. 애먼 생명만 죽일 듯해 부라부라 물을 주고 햇볕 잘 드는 곳에 옮겨 놓으니 그제야 생기를 되찾았다.

헌책방에서 어쩌다 만나는 귀한 책들이 꼭 이와 같다. 오랫동안 손길이 끊긴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뒤늦게 뒤적거리려보면 놀라운 향을 품고 있는 책이 있게 마련이다. 호암 문일평의 《화하만필》(삼성문화재단)이 그랬다. 우연히 한 헌책방에 들렀다 이 책에 눈길이 멈췄

다. 다른 책이라면 이리 저리 재보며 망설였겠지만 이 책은 바로 집어들었다.

근대 사학계의 거목인 호암의 명성에 먼저 혹했지만, ‘꽃 아래서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제목도 맘에 쏙 들었다. <삼성문화문고> 19번을 단 이 책은 1972년에 초판발행해 책등이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세로조판으로 한자의 숲을 이룬 이 문고본은 공공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70원에 배포한다고 밝혀져 있다.

호암은 근원 김용준의 《근원수필》(범우사)에 필적할 만한 문장력과 《양화소록》(놀와)을 지은 강희안의 감식안을 두루 갖춘 근대의 재사이자 문사다. 최근 열화당에서 복간된 《예술가의 성직》이 호암 예술론의 정수를 담았다면, 이 책은 시(詩)·사화(史話)가 어우러진 에세이의 명편으로 꼽힐 만하다. 시인묵객들의 꽃에 얽힌 일화나 한시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호암만의 개성적인 미학이 편편마다 스며 있다.

꽃에 얽힌 시인묵객들의 운치 담겨

책을 펼치면 철학자 이훈구의 헌사가 나오고 이어 붓으로 그린 매화 그림과 함께 매화에 대한 호암의 품평회가 시작된다. 호암은 “고금에 매화를 노래한 시인이 그 얼마나 많으리오마는 임화정처럼 매화의 신수(神隨)를 미득(味得)한 이는 없다”며 상찬한다. 호암이 ‘천고절조’(千古絶調)로 꼽은 임화정의 한시를 옥편을 뒤져가며 어렵사리 이렇게 옮겨봤다.

“성긴 그림자 비스듬히 비끼는데 물은 맑고 얇다 / 은은한 향기 떠서 움직이자 달이 어둡어 독해진다”(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

이 책에는 매화 이외에도 두견화·영산홍·국화·수선화 등 수십개의 꽃에 얽힌 선인들의 운치 있는 시·노래와 함께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담겨 있다. 예컨대, 모란과 선덕여왕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지만, 작약과 제국공주에 얽힌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던 대목이다. 원세조의 딸로서 고려 충왕후가 된 제국공주가 어느날 뜨락을 거닐다 작약을 꺾어 들고 한참 완상하다 붉은 눈물을 떨구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주는 병이 들어 서거했다고 한다.

치자로 글을 열었으니 치자 이야기로 마무리해야겠다. 호암에 따르면 치자나무는 일찍부터 명화로 이름을 날렸다. 증단백이 찬한 《화(花)의 십우(十友)》에서 치자는 ‘선우’(禪友)로 불리웠고, 강희안은 《양화록》에서 치자의 네가지 미덕을 칭송했다. 치자가 꽃빛이 하얗고 향기가 맑으며, 겨울철에 낙엽지지 않고 열매는 누런 물감으로 쓰니 이는 꽃이 가장 귀한 자라 했다.

여기에 나오는 꽃 이야기를 찬찬히 아껴가며 읽다보면, 꽃 향기가 코끝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박천홍 기자